

대학생은 발달단계에서 청소년 후기로 구분된다(Erikson, 1968). 청소년 후기의 발달과업은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직업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존재와 위치를 확인하는 것인데(Havighust, 1972),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인성의 발달을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두 가지 지체 현상을 드러낸다(오진미, 2004). 맹목적인 대학 입시의 몰입으로 인해 자기 정체성의 확인이 구조적으로 지체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하나이고, 자기 생애에 대한 긴 안목을 형성하지 못한 채 거의 타율적으로 이루어진 전공분야의 선택으로 인해 진로탐색 또는 진로사고가 지체되고 있는 것이 또 다른 현상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진로 및 취업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으며(한정신, 1991), 대학생활 중 도움을 받고 싶은 첫 번째 상담영역도 진로문제인 것으로 밝혀졌다(고려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 2003; 김계현, 문수정, 2002). 이렇듯 대학생들이 진로문제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자신에 대한 이해 부족, 합리적인 준비와 계획의 부족, 실천의 부족 등의 이유로 진로선택과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김병석, 1997). 또한, 자아 효능감과 같은 인지적 요인들이 진로태도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임진, 2004). 본 연구는 최근 진로결정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요인으로 밝혀진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관련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최근 진로와 관련된 영역에서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인지적인 측면에 대한 관심의 증가라 할 수 있다(Betz, 1992; Brown & Brooks, 1991; Neimeyer, 1988; Rounds & Tracey, 1990; Spokane, 1991). 이 분야에서의 연구들은 인지적 문제해결과 의사결정능력이 진로발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Brown & Brooks, 1990), 인지적 측면은 진로 관련 정보의 처리(이재창, 최인화, 박미진, 2002)와 진로발달 및 진로의사결정(Lusting & Strauser, 2002)과 같은 영역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Krumboltz(1994)는 사람들은 자신과 직업 세계에 대한 신념에 따라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리고 진로관련 활동들을 수행한다고 주장하였다.

Sampson, Peterson, Lenz와 Reardon(1992)은 인지정보처리이론과 인지치료의 이론적 개념을 토대로 진로의사결정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역기능적 인지를 역기능적 진로사고로 개념화했고, 이를 토대로 진로사고검사(Career Thought Inventory: CTI)를 개발하였다(Sampson, Peterson, Lenz, Reardon, & Saunders, 1996). CTI가 개발된 이후 역기능적인 진로사고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역기능적 진로사고는 정서적 변인이 아니라 인지적 변인이며(Dodge, 2001; Osborn, 1999), 왜곡되고 잘못 지각된 진로신념과 관련이 있고(Lusting & Strauser, 2002), 진로 미결정의 주요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이재창 외, 2002; Saunders, Peterson, Sampson, & Reardon, 2000). 또한, 역기능적 진로사고는 진로의사결정 회피와 진로준비활동 방해 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Sampson et al., 1996), 무력감과 우울, 흥미저하, 더 나아가 자기 가치감과 주관적 안녕감을 감소시키고 낮은 직무수행과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Lusting & Strauser, 2002; Sampson et al., 1996). 이러한 연구결과는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진로를 선택하는 능력과 진로선택 실행을 저해한다는 가정을 지지하며(Dodge, 2001), 역기능적인 진로사고를 감소시키는 것이 내담자의 진로발달과정에서 중요하다는 주장(Young

& Chen, 1999)을 설득력 있게 만든다. 이처럼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개인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주고 진로의사결정 과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임을 전제할 때, 역기능적 진로사고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구하여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직접적으로 탐구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지만, 역기능적 인지가 부정적인 초기 경험에 기인하고(Hermann, 1992; Kovacs & Beck, 1978; Young, 1990), 가족 내 갈등이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최인화, 2003)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주장이 타당하다면, 부정적인 초기경험과 가족 내 갈등의 중심에 있는 부모와의 관계 혹은 애착이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즉,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은 자신 및 진로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을 형성하는데 순기능으로 작용하겠지만, 불안정한 애착형성은 비합리적이고 부정적인 신념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역기능적인 사고가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부모와의 관계 혹은 애착이 진로선택 등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최근에 많이 제기되고 있다(강차연, 박경, 2001; 박수길, 2000; 이영선, 1999; Blustein, Walbridge, Friedlander, & Palladino, 1991; Hazan & Shaver, 1990; Rice, 1990). 실례로, 안정된 애착으로 인해 얻어지는 긍정적인 자기평가와 자신감은 자신에게 맞는 진로와 직업선택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갖게 하며(Ketterson & Blustein, 1997; O'Brien, 1996; 이내은, 2003; 최

은실, 2001), 진로성숙, 진로결정수준, 진로탐색, 진로결정 및 자기 효능감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되고 있다(유지선, 2004; 임진, 2004; 최동선, 2003; Blustein et al., 1991; O'Brien, 1996; Ryan, Solberg, & Brown, 1996). 그러나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부모와의 애착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부모와의 애착 정도를 설정하고, 대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와의 애착정도가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부모애착 수준 외에도 연구 참여자의 성별과 상담경험 여부를 변인으로 채택하여 그 영향을 살펴보았다. 부모애착 수준 외에 성별과 상담경험을 독립변인으로 채택한 것은 문화구성원들의 집단내 차이를 강조하는 최근 상담심리학계의 기초를 반영한 것이며, 또한 진로 및 상담관련 연구들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두 변인이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함이다. 우선, 성별은 진로발달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독립변인으로 채택되어 그 영향력의 유무가 검증되었을 뿐만 아니라(강차연, 박경, 2001; 박수길, 2000; 이영선, 1999; 최인화, 2003), 성별에 따라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선행연구들은(고향자, 강혜원, 2003; 이재창 외, 2002) 남학생들에 비해 여학생들의 역기능적 진로사고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여성들의 높은 불안수준과 상대적으로 낮은 자존감이 그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Betz & Hackett, 1981; Herr & Cramer, 1996).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참여자들의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채택하여 그 영향을 살펴보았다. 상담경험 역시 독립변인으로

채택되어 그 영향을 통제하였는데, 이는 최근 연구들에서 상담경험 여부가 관련 현상들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예, 내담자가 제기하는 상담문제유형, Tracey, Leong, & Glidden, 1986; 상담기법 선호도, 서영석, 2003; 서영석, 안창일, 2003; 서영석, 2004; 상담에 대한 태도, Lagana, 1995; Lucas, 2002; Solberg, Ritsma, Davis, Tata, & Jolly, 1994; Yoo, 1997)와 진로상담경험이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 간에 역기능적 진로사교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설에 기인한다. 본 연구에서의 주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역기능적 진로사교에 차이가 있는가? 2. 대학생의 진로상담 경험여부에 따라 역기능적 진로사교에 차이가 있는가? 3.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와의 애착 정도에 따라 역기능적 진로사교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에 소재한 K대학교($n=81$), G대학교($n=58$), S대학교($n=53$), J대학교($n=25$) 등 4개의 대학교에서 일반 교양과목과 교직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들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자는 남학생 79명(37.8%), 여학생 130명(62.2%)으로, 1학년 35명(16.3%), 2학년 79명(38.0%), 3학년 48명(23.1%), 4학년 47명(22.6%)이었다. 연구참여자의 전공분야는 인문계열 121명(57.9%), 이과계열 58명(27.8%), 예·체능계 15명(7.2%), 기타 15명(7.2%)으로 분포하였고, 연령범위는 만18세에서 만30세까지였다($M=21.84$, $SD=2.40$). 연구참여자 중 '상담자나

지도교수와 진로상담을 한 적이 있다'고 보고한 사람이 36명(17.4%), '최근에 진로검사를 해 봤다'고 보고한 참여자가 15명(7.2%), '진로상담이나 진로검사 경험이 없다'고 보고한 학생이 158명(75.4%)이었다.

측정도구

부모애착검사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와의 애착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정정숙(1994)이 번안한 부모와 동료에 대한 애착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를 사용하였다. IPPA는 Armsden과 Greenberg(1987)가 개발한 것으로 부모와 동료에 대한 정의적, 인지적, 행동적 측면의 애착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애착을 측정하는 28문항을 사용하였다. IPPA는 세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모와의 언어적 의사소통 정도와 질을 측정하는 의사소통 영역 10문항(예, "아버지/어머니는 내 감정을 존중해 주신다"), 정서적 욕구에 대한 부모의 반응 안정성을 측정하는 신뢰감 영역 10문항(예, "아버지/어머니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신다"),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유리 또는 부모에 대한 분노를 측정하는 소외감 영역 8문항(예, "나는 아버지/어머니에게서 별 관심을 받지 못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평정되는데(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 매우 그렇다), 소외감 영역 문항들을 제외한 모든 부정적인 문항들은 반대로 채점된다. 의사소통 문항과 신뢰감 문항을 더한 점수에서 소외감 문항 점수를 뺀 것이 개인의 애착 점수가 되며, 이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애착이 높음을 의미한다.

다. Armsden과 Greenberg가 보고한 어머니에 대한 애착 척도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 척도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각각 .87, .89 이었고, 부모 애착에 대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93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애착점수의 Cronbach's alpha가 의사소통 .88, 신뢰감 .84, 소외감 .75, 전체 문항 .71로 나타났고, 어머니에 대한 애착점수는 의사소통 .87, 신뢰감 .81, 소외감 .75, 전체 문항 .63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사고검사

연구참여자의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측정하기 위해 진로사고검사(Career Thought Inventory: CTI)를 사용하였다. CTI는 Sampson 등(1996)이 인지정보처리 이론과 인지치료이론을 토대로 개발하였는데, 전반적인 역기능적 사고를 나타내는 총점과 세 가지 하위척도, 즉 수행불안(commitment anxiety, 10문항), 외적갈등(external conflict, 5문항), 의사결정혼란(decision-making confusion, 14문항) 등 총 4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행불안(commitment anxiety, 10문항)척도는 결과에 대한 일반화된 불안으로 인한 무능력을 반영하며, 이러한 불안은 진로 미결정을 지속시키게 된다. 수행불안이 높은 사람은 주어진 대안 중 한 가지 대안을 선택하거나 대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기는 등, 일련의 선택과정에서 결단을 내리기가 어렵다(예, “나는 직업에 대한 생각들이 자주 변한다”). 외적갈등(external conflict, 5문항)척도는 결정에 대한 책임감을 회피하게 만드는 갈등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 타인에게서 얻는 정보의 중요성과 자신이 지각한 정보의 중요성 간에 균형을 조절하지 못하는 능력을 반영한다(예, “나에게는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항상 그것을 누군가

가 방해한다”). 의사결정혼란(decision-making confusion, 14문항)척도는 의사결정과정 자체에 대한 이해부족 혹은 정서적 문제로 인해 의사결정과정을 시작하거나 지속시키는 것과 관련된 어려움을 반영한다. 의사결정 혼란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문제에 압도당해 의사결정과정을 시작하기 어렵고, 문제해결과정에서 불안과 우울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유발된다(예, “나는 나에게 맞는 전공이나 직업선택을 잘 생각해낼 수 없다”).

CTI는 Likert 4점 척도로 평정되는데(0점 = 전혀 그렇지 않다, 3점 = 매우 그렇다), 전체 응답 중 무응답이 5개 이상이면 무효 처리한다.

이재창 등(2002)이 실시한 연구에서 전체 문항들의 Cronbach's alpha가 .95로 보고되었는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는 수행불안 .83, 외적갈등 .61, 의사결정혼란 .90, 전체문항 .9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요인들의 점수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수집 및 연구절차

연구를 실시하기에 앞서, 교양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조사에 대한 협조를 구하였다. 설문지는 수업시간 중에 연구자나 강의 담당자에 의해 배포, 수거되었으며, 설문지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20분 정도였다.

설문지 중 110부는 인구통계학적 질문지, 부모애착 검사지, 진로사고 검사지 순서로, 107부는 인구통계학적 질문지, 진로사고검사지, 부모애착 검사지 순서로 구성하여 순서효과(order effect)를 통제하였다. 배포된 설문지 217부 중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부재로 인하여 부모애착 질문지를 양쪽 모두 완성하지 못한 것을 포함하여 답변이 성실하지 않은 8부를 제외한 총 209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연구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참여자의 학년이 다른 변인들과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주요 분석에서 공변인(covariate)으로 처리되었다.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었다.

연구결과

MANCOVA

상관분석(correlational analyses)

주요 연구문제에 대한 통계분석에 앞서 참

앞의 상관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부애착과 모애착 점수 간의 상관관계가 높아($r = .80$) 부애착 점수와 모애착 점수의 평균을 합한 다음,

표 1. 변인 간의 상관

	1	2	3	4	5	6	7	8
1. 성별	-							
2. 학년	-.08	-						
3. 진로상담경험	-.10	.09	-					
4. 부애착	.05	.12	.01	-				
5. 모애착	.11	.07	.01	.80**	-			
6. 의사결정혼란	.16*	-.17*	-.03	-.25**	-.28**	-		
7. 수행불안	.21**	-.19**	.08	-.10	-.11	.72**	-	
8. 외적갈등	.07	-.20**	.07	-.25**	-.20**	.62**	.48**	-

참고. 상관분석 시 여성, 진로상담 유경험자를 1로 부호화하였다.

* $p < .05$, ** $p < .01$.

표 2. MANCOVA 결과 요약 표

Source	λ	Hypo. <i>df</i>	Error <i>df</i>	<i>F</i>
성별(A)	.99	3	195	0.56
진로상담경험(B)	.95	3	195	3.47*
부모애착수준(C)	.94	3	195	4.53**
A × B	.97	3	195	2.28
A × C	.98	3	195	1.26
B × C	.99	3	195	0.80
A × B × C	.97	3	195	1.93

* $p < .05$, ** $p < .01$.

표 3. 진로상담경험과 부모애착수준에 따른 역기능적 진로사고 평균치 및 표준편차

역기능적 진로사고	진로상담 무경험자		진로상담 유경험자		부모애착 低집단		부모애착 高집단	
	M	SD	M	SD	M	SD	M	SD
수행불안	1.51	0.49	1.60	0.47	1.57	0.43	1.48	0.54
외적갈등	1.16	0.49	1.23	0.43	1.31	0.52	1.03	0.39
의사결정혼란	0.90	0.50	0.86	0.42	1.03	0.49	0.74	0.42

참고. 진로상담 무경험자($n = 158$); 진로상담 유경험자($n = 51$); 부모애착 低집단($n = 105$); 부모애착 高집단($n = 104$).

중앙치($M=4.75$)를 중심으로 부모애착 수준을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부모애착 低집단, $n=105$; 부모애착 高집단, $n=104$). 또한, ‘상담자나 지도교수와 진로상담을 한 적이 있다’고 보고한 사람과 ‘최근에 진로검사를 해 봤다’고 보고한 참여자들을 ‘진로상담 유경험자’로, ‘진로상담이나 진로검사 경험이 없다’고 보고한 학생들을 ‘진로상담 무경험자’로 구분하여 독립변인의 수준을 정하였다.

진로사고검사의 하위요인 간에 서로 유의하고도 높은 상관관계(.48-.72)를 보임으로써, $2 \times 2 \times 2$ multivariate analysis of covariance(MANCOVA)를 사용하여 Wilks's lambda(λ)를 기준으로 주요 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참여자의 성별, 진로상담 경험 여부, 부모애착 수준이 요인(factor)으로, 참여자의 학년이 공변인으로, 진로검사의 3개 하위요인들이 종속변인으로 각각 처리되었다. MANCOVA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진로상담 경험과 부모애착 수준의 주효과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참여자들의 성별에 대한 주효과와 변인 간의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효과에 대한 공변량분석(ANCOVA) 결

과, 진로상담 경험의 경우 수행불안에서($F = 4.42, p < .05$), 부모애착 수준의 경우 의사결정 혼란($F=9.19, p < .01$)과 외적갈등($F=8.43, p < .01$)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공변량분석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난 통계치들에 대한 평균값과 표준편차는 표 3에 제시되었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과거에 진로상담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진로상담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수행불안을 더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부모애착 수준이 낮은 학생들은 부모애착 수준이 높은 학생들에 비해 외적갈등이 높고 의사결정혼란을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성별과 진로상담경험 여부, 지각된 부모애착수준이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 그 의미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진로상담 유경험자들이 진로와 관련해서 수행불안을 더 느끼고, 부모애착 수준이 낮은 학생들이 외적갈등과 의사결정혼란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

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성별에 따라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진로상담 경험여부에 따라 대학생들의 역기능적 진로사고 중 수행불안 수준에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진로와 관련된 조언이나 상담을 원하는 대학생들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알려준다. 즉, 진로상담을 원하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타인과의 갈등(외적갈등)이나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서적인 혼란(의사결정혼란)보다는, 진로와 관련된 여러 대안 중에서 우선순위를 매기고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것에 어려움을 느껴 결국 진로 미결정상태에 빠져있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진로상담을 원하는 대학생들의 욕구를 파악하게 해준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상담전략을 수립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여러 선택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최선의 선택을 미룬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므로, 상담자는 먼저 진로상담의 문을 두드리는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 흥미,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고 유연성 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또한 상담자는 내담자가 최선의 진로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내담자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직업 정보를 제공하고, 진로결정과정에서 개입될 수 있는 내담자의 인지적, 정서적 기제들의 영향을 스스로 인지하도록 조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애착수준이 낮다고 지각한 학생들이 진로와 관련된 외적갈등과 의사소통혼란을 더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부모와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맺고 있다고 지각하는 학생들이 진로

문제로 중요한 타인과 갈등을 더 겪으며, 진로 의사결정과정에서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하고 불안과 우울 같은 정서적인 문제를 더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과 상관이 없다는 연구결과(최동선, 2003), 애착이 진로선택의지 발달과 포기성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Blustein, 1991)와는 다르지만, 애착이 진로성숙(이내은, 2003)과 진로결정수준(이은경, 2001; O'Brien, 1996)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어머니와의 애착이 진로태도성숙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임진, 2004)와 부애착이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문승태, 2002), 부애착 및 동료애착이 여대생의 진로미결정과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유지선, 2004)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렇듯, 부모애착에 따라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진로와 관련해서 합리적인 사고를 하려면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역으로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얻는 심리적 안정감을 통해 진로를 결정할 가능성이 많음을 시사한다. 이는 반대로 부모와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형성한 대학생들을 진로상담 할 때에는 정서적 지지와 함께 현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잠재력을 이끌어내어 위축된 불안정감을 극복하고 합리적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야함을 의미한다. 부모와의 애착과 진로관련 변인 간의 관계를 연구한 최근 논문들은 성취 동기, 진로결정 자아효능감(임진, 2004) 및 직업적 자아개념의 결정화(Tokar, Withrow, Hall, & Moradi, 2003)와 같은 매개 변인들이 초기에 형성된 불안정한 애착의 영향을 감소시키고

진로성숙태도와 진로미결정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다. 즉 진로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 혹은 현재의 부모애착 관계뿐만 아니라, 내담자가 지니는 심리적 특성들에 초점을 맞춰 그것들을 계발하고 발휘하게 하는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인지적 재구성 등과 같은 상담기법을 통해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감소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을 돕는 상담자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성별에 따라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더 많이 한다는 선행연구들(고향자 외, 2003; 이재창 외, 2002)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과거 상대적으로 취업에 유리했던 남학생들 역시 최근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고, 이러한 사회적 현상으로 인해 진로에 대한 남학생들의 사고가 이전에 비해 역기능적으로 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사회의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하려는 여학생들의 의식이 예전에 비해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변해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대한 남녀 간의 차이가 사라졌을 가능성 또한 생각해볼 수 있다. 즉, 사회적 현상과 개인의 심리적 변인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대한 남녀 간의 차이가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와의 애착수준을 측정했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생애 초기에 형성된 부모와

의 애착수준을 측정한 것이 아니라 현재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부모와의 애착관계를 평정하였기 때문에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미치는 영향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가 독립변인을 조작하고 가외변인들을 통제한 실험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애착수준이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원인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즉 본 연구는 애착수준과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관련성을 파악했다는 것으로 의미를 제한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애착수준을 두 개의 집단으로 설정하여 통계검증을 실시하였는데, 연속변인인 부모애착수준을 범주변인(categorical variable)으로 변환함으로써 그만큼 통계적 검증력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변인으로 채택되어 그 영향을 살펴본 성별 및 진로상담 경험여부, 부모애착수준은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관련된 여러 변인 중 일부에 불과하다. 다양한 변인 특히 청소년 후기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동료애착 또는 상호애착에 대한 변인의 영향을 후속 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진로발달을 포함한 사회 심리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가족으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자율성(김은진, 2001; Blustein, 1991; O'Brien, 1996) 등 관련 변인들의 영향 또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부모와의 애착뿐만 아니라 진로와 관련된 주요 변인들의 다각적이고 다층적인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것은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관련된 해결방안을 보다 분명하게 제시해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서울에 소재한 4개의 대학에서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전국의 모든 대학생들에게 일반화할 수는 없다. 보다 다양

한 배경을 가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차연, 박경 (2001). 대학생들의 애착과 진로 발달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2), 51-69.
- 고려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 (2003). 2003년 고려대학교 신입생 실태조사. 고려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 보고서, 54.
- 고향자, 강혜원 (2003).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과 역기능적 진로사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2), 277-293.
- 고향자, 김영아 (2003). 대학생 진로상담에서 인지적 정보처리접근의 유용성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3), 277-293.
- 김계현, 문수정 (2002). 2002학년도 서울대학교 신입생 특성조사 보고. 서울대학교 대학 생활 문화원. 보고서, 70.
- 김병석 (1997). 진로상담 모형개발연구. 서울: 청소년 대화의 광장.
- 김은진 (2000).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과 애착이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 자아정체감 수준을 매개로 -.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승태 (2002).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변인과 심리적 변인간의 인과관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수길 (2000). 한국대학생의 진로 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변인과 개인변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위논문.
- 서영석 (2003). 개인의 문화적 가치가 상담장면에서의 감정표현 인식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4(2), 329-345.
- 서영석 (2004). 상담경험과 개인의 문화적 가치가 상담기법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5(2), 325-336.
- 서영석, 안창일 (2003). 문화가치에 대한 충실도, 성격유형 및 상담경험이 상담기법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3), 403-421.
- 오진미 (2004). 진로탐색훈련이 대학생의 진로 사고력에 미치는 효과. 학생생활연구, 19, 1-21, 덕성여자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유지선 (2004). 여대생의 진로미결정과 애착 및 자아효능감의 관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내은 (2003).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과 애착이 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선 (1999). 진로미결정에 대한 심리적 독립 애착 및 특성불안의 관계.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경 (2001).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재창, 최인화, 박미진 (2002). 역기능적 진로사과의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2), 401-414.
- 이재창, 최인화, 박미진 (2003). 진로사과검사의 한국 표준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3), 529-550.
- 임진 (2004). 애착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성취동기와 진로결정 자아 효능감을 매개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정숙 (1994). 자아정체감과 독립성 및 애착간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동선 (2003).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과 동기요인 및 애착의 관계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인화 (2003). 대학생의 가족체계유형과 역기능적 진로사고와의 관계. 학생생활연구, 17, 61-101, 홍익대학교.
- 최은실 (2001). 애착과 일반적인 자기 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정신 (1991). 한국대학생 문제진단검사 개발 연구. 학생생활연구, 17, 1-53, 숙명여자대학교 학생생활지도연구소.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16, 427-454.
- Betz, N. E., & Hackett, G. (1981). The Relationship of career-related self-efficacy expectations to perceived career options in college women and 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5), 399-410.
- Betz, N. E. (1992). Career assessment: A review of critical issues. In S. D. Brown & R. W. Lent(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2nd ed., pp.453-484). New York: Wiley.
- Blustein, D. L., Walbridge, M. M., Friedlander, M. L., & Palladino, D. E. (1991). Contributions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1), 39-50.
- Brown, D., & Brooks, L. (1990).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Applying contemporary theories to practice*. San Francisco: Jossey-Bass.
- Brown, D., & Brooks, L. (1991). *Career counseling techniques*. Boston: Allyn & Bacon.
- Dodge, T. D. (2001). *An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mily of origin and selected career development outcom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Louisiana Tech University.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Havighust, R. J. (1972). *Development Tasks and Education*. N.Y.: Longmans.
- Hazan, C., & Shaver, P. R. (1990). Love and work: An attachment-theoretical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270-280.
- Herr, E. L., & Cramer, S. H. (1996).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through the lifespan: Systematic approaches*(5th. ed.). New York: Harper Collins.
- Hermann, J. (1992). *Trauma & Recovery*. New York: Basic Books.
- Ketterson, T. U., & Blustein, D. L. (1997). Attachment relationships and the career development proces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6, 167-178.
- Kovacs, M., & Beck, A. T. (1978). Maladaptive cognitive structures in depressio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5, 525-533.
- Krumboltz, J. D. (1994). The Career Beliefs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2, 424-28.
- Lagana, L. (1996). Older adults expectations about mental health counseling: A multivariate and discriminant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 Human Development*, 40, 297-316.
- Lucas, G. A. (2002). *Coping style, need for counseling, and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 psychological*

- counsel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ebraska, Lincoln.
- Lusting, D. C., & Strauser, D. R.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sense of coherence and career thought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1, 2-11.
- Neimeyer, G. J. (1988). Cognitive intergration and differentiation in vocational behavior.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6, 440-475.
- O'Brien, K. M. (1996). The influence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on the career development of adolescent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8(3), 257-274.
- Osborn, D. S. (1999). *The relationships among perfectionism,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and career indecis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Florida State University.
- Rice, K. G. (1990). Attachment in adolescence: A narrative an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9(5), 511-538.
- Rounds, J. B., & Tracey, T. J. (1990). From trait-and-factor to person-environment fit counseling: Theory and process. In W. B. Walsh & S. H. Osipow (Eds.), *Career counseling: Contemporary topics in vocational psychology* (pp.1-44).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Ryan, N. E., Solberg V. S., & Brown, S. D. (1996). Family dysfunction, parental attachment, and career search self-efficacy among community college stud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1), 84-89.
- Sampson, J. P. Jr., Peterson, G. W., Lenz, J. G., & Reardon, R. C. (1992). A cognitive approach to career services: Translating concepts into practic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1, 67-72.
- Sampson, J. P. Jr., Peterson, G. W., Lenz, J. G., Reardon, R. C., & Saunders, D. E. (1996). *Career Thought Inventory: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Saunders, D. E., Peterson, G. W., Sampson, J. P. Jr., & Reardon, R. C. (2000). Relation of depression and dysfunctional career thinking to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6, 288-298.
- Solberg, V. S., Ritsma, S., Davis, B. J., Tata, S. P., & Jolly, A. (1994). Asian-American students severity of problems and willingness to seek help from university counseling centers: Role of previous counseling experience, gender, and ethnic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1, 275-279.
- Spokane, A. R. (1991). *Career interven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Tokar, D. M., Withrow, J. R., Hall, R. J., & Moradi, B. (2003). Psychological separation, attachment security, vocational self-concept crystallization, and career indecision: a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 3-19.
- Tracey, T. J., Leong, F. T., & Glidden, C. (1986). Help seeking and problem perception among Asian America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3, 331-336.
- Yoo, S. (1997). *Individualism-collectivism, attribution styles of mental illness, depression symptomatology, and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help: A comparative study between Koreans and American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 of Minnesota, Minneapolis.
- Young, J. E. (1990). *Cognitive therapy for personality disorder: A schema-Focused Approach*. Sarasota, FL, Professional Resource Exchange.
- Young, R. A., & Chen, C. P. (1999). Annual review: Practice and research in career counseling and development-1988.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8, 98-141.

원 고 접 수 일 : 2005. 5. 31

수정원고접수일 : 2005. 7. 13

게 재 결 정 일 : 2005. 8. 5

K C I

The Effects of Characteristics of College Students and Perceived Parental Attachment on their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Hyun-young Choi

Young Seok Seo

Konkuk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how characteristics of college students (gender, previous career counseling experience) and their perceived parental attachment affect their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Two-hundred nine college students were asked to fill out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and Career Thought Inventory. It was revealed that previous career counseling experience and degree of perceived parent attachment influenced the extent to which the participants held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First, those with previous career counseling experience showed higher commitment anxiety, as compared with those with no previous counseling experience. Additionally, those who perceived less parental attachment were found to experience more decision-making confusion and more external conflict, as compared with those who perceived more parental attachment. Unlike the previous studies, however, the present study found no gender difference in terms of degree of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for career education and counseling are discussed.

Key Words : college students, parental attachment, dysfunctional career thought, career counseling